

# '쁘띠프랑스' 에서 만난 닭을 사랑하는 프랑스 문화

글 | 정승일 기자(jsiid@naver.com)

프랑스의 국조(國鳥), 닭(Coq gaulois)

최근 종영한 TV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 나오는 이국적이고 예쁜 건물들을 보면서 '촬영지가 어딜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쁘띠프랑스' 라는 곳이였다. 드라마의 인기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가면서 블로그에 '쁘띠프랑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올려놓았다. 정보를 검색하던 중 이 곳의 갤러리에 '닭'을 주제로 한 전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월드컵을 통해 프랑스인들이 닭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프랑스의 국조가 닭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닭은 옛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유럽에서 문화와 예술의 중심에 있는 프랑스에는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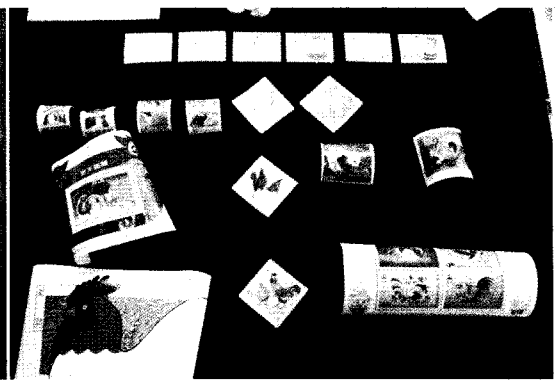




쁘띠프랑스 입구



포스터



닭이 새겨진 우표

## 프랑스를 상징하는 닭

프랑스에서 닭은 고대에는 용맹스러움의 상징으로, 중세 시대에는 종교적인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희망과 믿음을 상징했었다. 그것이 현대에 이어져 프랑스를 상징하는 국조가 되었다고 한다.

왕족을 대표하는 게르만족과 민중을 대표하는 골족이 대립을 했는데, 골족이 수탉을 상징으로 삼아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고 전해온다. 그러나 다른 설에 의하면 어느 프랑스 왕이 재상에게 일주일에 한번 민중들이 닭고기를 먹게 했다고 한데서 유래한다는 설도 있다. 즉, 닭고기를 많이 먹어 국조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렇듯 닭은 프랑스인들의 삶의 일부로 스며들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닭은 '푸텍스'라는 이름으로 마스코트 역할을 했으며 2002년 월드컵에서는 프랑스 선수들이 '수탉'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바 있다. 이렇게 세계에서 닭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 '쁘띠프랑스'를 찾아갔다.

## 한국안의 작은 프랑스 마을 '쁘띠프랑스'

'쁘띠프랑스'는 2008년 7월 프랑스 문화

를 체험할 수 있는 고성청소년수련원으로 문을 열었다고 한다.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프랑스 문화마을 '쁘띠프랑스'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 호명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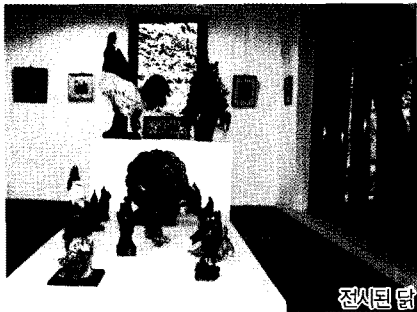
청평댐을 따라 남이섬 방향으로 '호명호'란 이름의 호수 길을 따라 10km 정도를 달리다 보니 하얀 벽과 붉은 기와의 건물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 '작은 프랑스' 마을이 보였다.

'쁘띠'는 '작은, 앙증맞은'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언덕을 그대로 살려 자연미를 최대한 강조한 '쁘띠프랑스'는 건물 하나하나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건물에서 아름다운 호수가 보여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풍겼다.

## 프랑스 문화가 있는 '쁘띠프랑스'

'쁘띠프랑스' 입구에선 '어린왕자'가 손님들을 먼저 반겼다. 들어가기 전 관람객들은 어린왕자와 함께 아니면, 홀로 된 어린왕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프랑스풍의 작고 평화로운 마을로 꾸며진 이곳에서는 프랑스 주택 전시관, 갤러리, 마리오네트 인형 체험관, 생텍쥐페리 기념관 등에서 다양한 프랑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연주공연을 비롯해 프랑스 애니메이션



전시된 닭



깃털로 만든 닭



닭을 위주로 한 다양한 액자



닭이 그려진 접시

상영, 뮤지컬 어린왕자 영상관람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마련 되어 있다.

또한 야외무대

에서는 상송연주나 팬터마임, 마리오네트 등과 같은 작은 공연을 볼 수 있고 밤에는 조용히 앉아 별을 감상할 수도 있다.

### 프랑스를 상징하는 닭(Coq gaulois)

야외 원형 무대 옆에 자리 잡은 갤러리는 약 240㎡의 아담한 공간으로 색다른 공간 연출이 특징이었다. 입구에는 우리나라 국기와 프랑스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었고, 창문에 '뽀띠프랑스 개관기념 전시회 Le Coq'라는 포스터가 붙어있었다. 바로 이곳에 프랑스 국조인 수탉과 관련된 조각상, 그림, 인쇄물 등 2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회장에 들어서자 온통 닭들의 세상 같아 보였다. 넓지는 않지만 닭으로 만든 다양한 장식품과 접시, 시계, 우표, 액자, 풍력계 등이 도자기, 유리, 깃털, 금속, 나무, 종이 등의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져 전시되고 있었

다. 손가락만한 크기에서부터 1m에 가까운 다양한 크기의 닭과 관련된 전시품들이 있었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전시품은 접시와 쟁반에 화려하게 그려진 닭이었다. 접시와 쟁반에 그려진 닭을 보면서 프랑스인들의 닭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액자에 화려하게 그려진 닭들은 어느 새와 비교해도 아름답다움에서 뒤지지 않았다. 전시된 닭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반해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드라마 속 주인공보다 더 동화 같은 배경에 반한 장소를 직접 구경할 수 있다는 흥분감은 아마도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 모두 똑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유럽의 작은 마을처럼 꾸며놓은 아기자기한 집들과 멀리 햇빛에 반사되어 보이는 청평호반 등 모든 것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이러한 곳에 닭이 한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전시되어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img alt="arrow icon" data-bbox="880 775 905 790"/>

- 관람 시간 : 9시~18시
- 입장료 : 어린이 5,000원/ 어른 8,000원
- 홈페이지 : <http://www.pfcamp.com>
- 문의 : (031)584-8200